

| | | | | |
|------|-------------------------------------|---------------------------|-----|------------------|
| 파견기간 | 2021.01~2021.05 | 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 | 소 속 |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
| 파견국가 | 미국 | | 성 명 | 이진교 |
| 파견대학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 작성일 | 2021.07.20 |

I. 개요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해외에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들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전공 분야 관련 새로운 과목도 수강해보기 위해 참가하였습니다.

2. 파견 지역/대학 선정 이유

텍사스 오스틴은 공대로 매우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저의 전공 분야가 특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오스틴은 텍사스의 수도로, 공화국의 공무원들은 콜로라도강이 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아 아름다운 광경과 중앙에 자리 잡은 이유로 오스틴을 수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며 관련하여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시스템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대학캠퍼스라고 합니다. 캠퍼스 근처에는 필요한 시설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거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4. 파견 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 부서 이름 및 연락처

Anna Boxall, Intercultural Programs Coordinator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Texas Global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512) 471-4961 | anna.boxall@austin.utexas.edu | global.utexas.edu

또는

exchangeadvisor@austin.utexas.edu

로 메일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비자 신청 절차 및 준비물은 포탈에 검색하여 정보를 얻으면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교에서 DS-2019를 받아야 하므로 이것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비자 인터뷰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교환 장학금 지원 시기 및 방법

공과대학 소속 학생들 경우에는 공대 국제협력실에서 일괄적으로 장학금 관련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의 메일을 잘 확인하여 일정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12월 초에 관련 메일을 받았고 3월 초에 입금받았습니다. OIA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1월 중순께 메일로 공지해주시니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숙소 지원 방법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 했습니다. 10월 즈음 해당교 담당자분께서 메일을 주셨고 일정에 맞춰 지원했습니다.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면 일반적으로 세끼 학식이 포함된 비용을 내게 됩니다. 여러 기숙사 중에서도 Whitis Court에서 생활하였는데 바로 앞 Kinsolving 건물에서 학식을 먹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생활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을 쓰는 학생들끼리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는다면 아파트나 코오피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숙사로 결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식비를 줄일 수 있어서 비용 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국외수학허가 신청 절차

마이스누에서 국외수학신청을 하고 수학신청원에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국제학생증이나 영문으로 적힌 운전면허증 등 여권을 대신할 ID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의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 신분증이 필요할 때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해서 여러 모로 불안했습니다.

III.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bar를 제거해야 하는데 입국 후 myIO에서 몇 가지 절차를 거치고, advisor와 상담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저의 경우 수강신청 직전까지 하나의 bar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위에 언급한 exchange advisor 로 메일을 보내 담당자분을 연결받아 해결하였습니다. 선이수과목이 있는 과목들의 경우 수강신청 전에 Advisor와 상담을 거쳐 우리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을 선이수과목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course list에 선이수과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대 자체에서 진행하는 OT도 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수강신청 시간에 진행하면 되고 수강 신청에 실패한 과목은 waitlist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여도 web강의 여부, 실습 요일 등에 따라 unique number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전공 4과목, 총 13학점을 수강하였습니다.

Transport Phenomena in Geosystems

유체역학의 연장선에서 그보다 넓은 범위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일반적인 Transport 과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Numerical Modeling in the Geosciences

교수님께서 학기마다 주제를 하나 정해서 프로젝트식으로 진행되는 모델링 수업입니다. MATLAB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며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Intro to Geostatistics

지구 통계학이지만 후반부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도 일부 다루는 과목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 분야와 연결하여 실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Properties of Petroleum Fluids

이론 3시간에 실험 3시간(격주)이 포함된 과목입니다. 후반부에는 이론 시간에 소프트웨어 실습도 진행하였는데 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3. 학습 방법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한 교수님의 발음 및 억양을 알아듣기 어려워서 조금 고생했지만, 학기가 지날수록 익숙해져서 괜찮았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스피킹 또한 교환학생을 신청한 이유 중 한 가지였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지내는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IV. 생활

1. 가져가야 할 물품

대개의 생필품은 캠퍼스에서 가까운 target에서 구할 수 있으며 아마존 배송도 prime을 이용하면 매우 빨라서 자리가 부족하다면 당장 필요한 물품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은 아마존 prime을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한국보다 확실히 물가가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학식을 먹어서 식료품을 살 일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생필품을 살 때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식당) 대부분의 식사는 학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했던 kinsolving 식당의 경우 아침에는 스크램블, 후라이, 오믈렛 등의 계란 요리와 베이컨이나 햄 종류, tater tots나 해쉬브라운, 간단한 빵 종류가 메인이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3~4개의 라인이 운영되는데 피자 및 스파게티는 항상 먹을 수 있고 그 외의 라인은 매일 메뉴가 변경됩니다. 샐러드 바도 있고 과일도 4~5종류가 항상 있습니다.

학식이 아니라면 guadalupe 거리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Roppolo's 피자는 정말 맛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식당이 아니라면 푸드트럭도 이용할 수 있는데 오스틴이 푸드트럭으로 유명한 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두 세 곳 정도의 푸드트럭 존이 있으니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 교환학생은 학교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학교 보험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지원되는 좋은 조건의 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저는 UFCU에서 계좌를 만들었고 결제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적은 없지만 venmo (간편송금앱)를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근처에 CHASE도 있으니 CHASE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UFCU는 학교 근처에 atm이 정말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교통) UT 학생이면 학생증으로 Metro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승까지 한다면 대부분의 목적지까지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공항까지도 쉽게 갈 수 있으므로 잠깐 떠나는 여행 등 짐이 많지 않을 때는 공항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신) 근처에 AT&T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prepaid sim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하는 동안 불편함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학교 체육관 시설이 매우 좋은데 야외 수영장과 지하 클라이밍장, 3층 육상 트랙 등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 시설은 무료로, 클라이밍장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므로 꼭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T Recsports에서 클라이밍권 뿐만 아니라 Texercise 등의 운동 프로그램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Union 빌딩에는 볼링, 포켓볼 등을 할 수 있는데 역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오스틴에는 공원이 정말 많습니다. 돗자리를 구비하여 이곳저곳에서 피크닉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늘이 정말 예쁜 곳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적당할 때 강에서 카약 또는 패들보드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봄방학은 3월 중순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알차게 세워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간혹 근처 target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메일을 받기도 했지만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캠퍼스 내에 가로등이 많아 밤에도 꽤 환하긴 하지만 굳이 밤 늦게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심야 시간대에는 학교에서 lyft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https://parking.utexas.edu/ut-night-rides> 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https://texasuka.org/>

UT 학부생 한인학생회입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니다.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이어도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니 카톡방에 들어가 보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H-mart,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한양마켓이 있습니다. H-mart가 더 크긴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을 한양마켓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H-mart의 푸드코트가 생각보다 맛있어서 H-mart에 방문하시면 푸드코트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쳐있던 와중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재밌었고,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서 나름 학교 시설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또는 동아리에서 소소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는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보다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에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보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